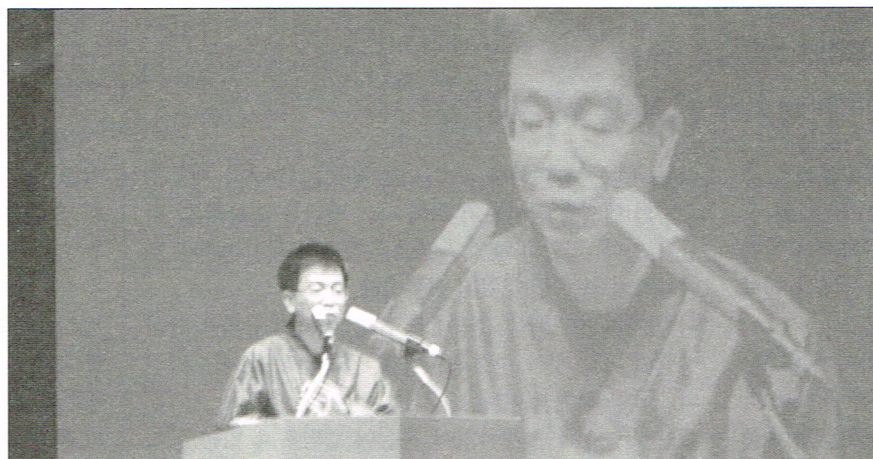


양교장, “하나님의 눈으로 청소년을 바라보자” 호소

청소년 사역을 위한 초청강연 첫시간, 수요공부시간에 가져

10월 27일 7시30분부터 1시간동안의 청소년사역을 위한 초청강연이 중예배실에서 문동학 목사의 인사로 시작되었다. 이번강연에는 간디청소년학교에 교장으로 계시는 양희창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학교'에 대한 말씀을 들려 주셨다. 요즘의 학교가 성적 중심으로 인간을 상품화 시키고 효율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함에 따라 아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으며 꿈을 상실하게 되고 다양성을 잃어간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구조가 교회의 구조로 까지 그대로 들어오게 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교육과 교회의 상관성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을 교육함에 있어 하나님의 형상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아이들과 같이 뜻을 세우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나아가서는 그 사회를 구원하는 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상으로 생태적 인간·봉사적 인간·정의적 인간을 들으



며 이런 이상적 인간상을 길러내는 쪽으로 학교와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지금의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안으로 불복종의 정신을 가르치고 탁월성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작은학교를 세워야 한다며, 이제는 이런 일에 있어서 교회가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쳤다.

“고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 양옥클래스탐방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5층 중보 기도실에서는 정희성 목사가 이끄는 양옥클래스 반 '고린도를 찾아서'가 있다.

10월 28일은 여섯번째 강의가 있었다.

(2면에서 계속)

국내선교3위, 지난달에 이어 15사단 신병세례식 주관

박집사, “군에 있을 때 짬해 놓아야”



지난 9월18일, 담임목사의 신병 세례 모습

30일 토요일에 이인호목사, 성백술장로를 비롯한 주님의교회 성도들이 15사단 세례식을 주관하였다. 지난달에 이어 우리교회가 주관하였고 약 300명의 신병들이 세례를 받았다. 다음은 부사단장으로 있는 박진수집사(중등부교사로 봉사)와의 인터뷰내용이다.

세례식준비와 추진하게 된 계기

신병들이 군에 들어오는 5주동안 신병교육을 받게 되는데 일반사회에서 군에 들어오며 두려움이 많다 그 때 사람들

을 반강제적으로 조교 교간이 세례자를 모집하는데 불교,천주교등 경쟁이 있다. 교회가 활동적인 것을 보여주며 전통을 만들 수 있으면 한다. 통상 300~400명이 받으며 이 때 초코파이등 선물을 준비한다. 신병교육 5주후 부대배치해서 군중병들이 이 세례자들을 관리해서 교회에 가도록 할 것이다. 일반교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 세례식을 하고 있다.

바람

우리나라는 현재는 아시아중 택함받은 나라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 해외선교 뒷받침되려면 우리나라가 먼저 그리스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가지 방법이 있다. 학원선교와 군선교가 있는데 군선교는 힘이 들 때 이들을 짬해놓는다면 나중에 사회에서 힘든 여건이 되면 군대시절 나도 세례를 받았는데 한 번 교회에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하기가 쉬울 것이다. 전민족 복음화를 위해 중요하다

일본만도린합주단,

다음주일 4부 내한공연

일본 다마 만도린 합주단 38명이 다음주일 11월7일 오후1시30분, 4부예배시간에 대예배실에서 내한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다마 만도린 합주단은 1985년도 일본 동경도 고마에시에서 만도린과 기타를 하는 주부들의 모임으로 시작하였다. 다마(TAMA)라는 이름은 고마에시 옆을 흘러내려가는 강 이름에서 따서 정했다고 한다. 1985년도부터 야마모토 선생의 지도를 받으면서 한달에 두번 수요일에 모여서 연습했다. 매년 고마에시에서 주최하는 초여름의 음악회에 참가하면서 2년에 한번씩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다. 그리고 1996년12월에 주님의교회에서 제1회 서울연주회를 갖기 시작해서 이번으로 5번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울연주회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한국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으며, 교회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2면에서 계속)

가을햇살에 반짝이는 유아부 아이들의 나들이예배

10월 24일 유아부는 바깥 나들이를 나섰다. 가을 햇살 아래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은 나뭇잎을 밟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특별히 유아부 교사들이 '예수님과 잃어버린 어린양' 연극을 했는데 늑대가 나오자 진짜로 울어버리는 사랑스러운 아이도 있었다. 예배를 마친 후 맛있는 야채와 오징어 들어간 안 매운 떡볶이도 간식으로 나왔다. 또 아이들은 지점토로 흙장난도 해보았다. 사실은 여러가지 문양이나 나뭇잎, 야채모양 찍기등 해보았다. 너무 신나는 시간이라 시간이 쏙 짧게 느껴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장년세례교육

예비세례자 30명 4개조로

11월 3일(수) 수요예배시간에 있을 장년세례예식을 위해 매주일 오후 1시 30분이면 1층 집회실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 세례자들을 4조로 편성하고 이를 관리해주는 사역팀이 있다. 1조는 류석우 집사와 이명자 집사, 2조는 전은숙 집사와 박인숙 집사, 3조는 현순자 집사와 정재훈 집사, 4조는 서금란, 지영민 집사이다. 조별 모임을 갖게 되는데 한주간의 삶을 간략하게 나눈다. 이번 주는 약속되어진 성경읽기 및 기도하기에 대한 실천 여부를 확인한다. 한꺼번에 주어진 과제를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간증문을 작성해오도록 했는데 간증의 초점은 구원간증이어야 한다. 치유, 성공, 신비체험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번 주일 모임시간은 1시까지 제3집회실로 모임이며 문답식을 갖는다. 또 간증발표자를 선정하여 개별 연락을 하게 된다.



예수전도단의 무슬람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무슬림의 복음전파를 위해 함께기도하길

2004년 10월 31일 일요일
차드의 마바 종족

소수의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실히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기도하자.

현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들 안에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고 믿음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도록 기도하자.

대부분 다른 나라의 재정 후원으로, 마바

종족 안에 많은 모스크와 꾸란 학교와 이슬람 교육 기관이 건축되는 상황이다. 마바종족들 안에 교육과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들의 갈망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열려 있도록 기도하자. 아직 마바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상태. 성경 번역에 헌신할 사역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2004년 11월 1일 월요일
카메룬의 마로우아 지구

마로우아 지역에 이슬람을 주입하려는

무슬림들의 강력한 시도가 무산되도록 기도하자. 이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뭉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미 마로우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약 20명(추정)의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사역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자.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 교회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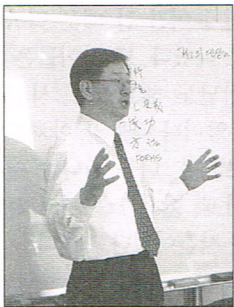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주위의 반대와 저항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도록 기도하자.

2004년 11월 2일 화요일
아프리카의 기독교 학교들

케냐와 그 밖의 여러 나라와 도시의 이름을 각각 열거하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무슬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케냐와 아프리카 전체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학교를 통해, 그 지역의 부모들과 아이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특히 나이로비 슬럼가에 사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자. 또한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학생들을 도하 그들의 미래의 꿈이 영글도록 기도하자.

양육클래스탐방 / 제2의 인생과 그리스도인

남집사, “자기지도력을 길러 제2의 인생을 매진하길”



올해 하반기 양육클래스 중 '제2의 인생과 그리스도인'은 매 주일 오후 1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5층 상담실에서 진행된다.

이 수업은 일방적이기보다는 각자가 자기 문제를 나누고, 토론하며, 자기의 생각을 같이 풀어가는 상호교통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강사인 남장희 집사는 먼저 이 강의에 대해 수강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각자가 말하도록 한 후 재력이나 학력이나 체력과 관계없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까지의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적인 위축감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그들은 아직 제2의 인생을 계획해서 매진해야 할 연령임에도 의욕과 꿈을 잃고 있거나 아니면 하루하루를 그저 다가오는 그 날에 대한 염려를 가진 채 보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신 귀한 사명이나 계획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 그 원흉이 나이로부터 오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위축감은 반드시 소망, 자신감, 의욕, 성공의 기대와 같은 것들로 대체되어야 하며 그 작업을 위해서 우선 자신을 관리하는 자기지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기지도력이란 자신의 생각을 선명하게 만드는 확신의 능력이며 삶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여 그 방향으로 전

력투구하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새로운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자기 생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생각은 스스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지도력을 길러내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을 같이 실현해 나갈 것을 수강생들에게 권고했다. 첫째는 자신의 '꿈'을 적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열망하고 있는 꿈이면 무엇이든 적도록 했다. 둘째는 '습관을 고치기 위한 점검표'를 작성하는 것이다. 만들어야 할 습관 또는 고쳐야 할 습관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그 중에서 가장 실행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목표를 세우고 매일 점검해 나가는 것이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반복이 특히 중요하다. 또한 '해야 할 일'을 적으며 하루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 힘들더라도 빠지지 않고 매일 적기만 하면 무언가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주 작은 것의 실행으로부터 시작하여 스스로 간직했던 큰 꿈을 이루어 내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망을 품고 한 발씩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 수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꿈과 목표를 위해 자기지도력 프로그램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기나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적용과 달성의 과정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오늘, 청소년 세례 및 입교

이번 주일 9시 30분 중예배실에서는 중등부와 고등부 연합으로 청소년 세례 및 입교식이 진행된다. 청소년 세례 및 입교식에 관한 첫 교육은 10월 3일(주일) 11시에 4층 교회학교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중등부 5명, 고등부 1명 총 6명이 교육을 받았다.

청소년 세례 및 입교는 1년에 2번 진행되며 3주간의 신앙 교육과 예식 전주의 문답 그리고 5주째에 예식이 진행된다. 이번 예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확신이 예배와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길 바란다.

(1면에 이어서)

일본만도린합주단,

다음주일 4부 내한공연

다음주일 프로그램은 전체 3부로 진행되는데, 1부는 만도린합주단의 단독연주가 있게 되고, 2,3부는 여러 교회의 성도들 25명으로 구성된 호산나합주단과 함께 합동 연주회를 가질 예정이다.



(1면에 이어서)

“고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 양육클래스 탐방



고린도 교회의 일그러진 모습 속에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변화되어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

주제 중심으로 성경 본문을 분석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성도들은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던 현상을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니 스스로가 행복해졌다고 했다.

수강하는 성도들은 집중해서 듣고,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한시간 반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했다.

강의가 끝난 후 나누는 따뜻한 차와 간식은 성도들 서로의 사랑을 더욱 끈끈하게 해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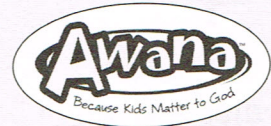
남은 강의시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라

어와나 시리즈 ③

'주님의교회 어와나(AWANA)' 가 곧 시작됩니다.



지난 호에서는 어와나 클럽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클럽미팅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지난 호의 내용을 간추려 소개하자면, 어와나의 목적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구원과 훈련이며, 강조점은 성경암송에 있다고 하였다.

또 어와나의 비전은 전 세계의 교회와 사역기관들과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제자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어와나는 리더들을 전문적으로 준비시키고자 통합된 프로그램, 자료 및 훈련과정을 만들어 내고 교육하고 있다. 또, 매주 정기 클럽미팅은 3가지 시간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게임 40분, 핸드북 40분, 교제 40분이라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호 참조)

이번 호에서는 각 지교회의 어와나 클럽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어와나를

향해 가지시는 비전을 함께 나누고 격려하며 파트너십을 배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은 무엇일까?

★Awana Games (어와나 게임즈)

Awana Games란, 각 교회에서 진행하던 게임을 각 교회의 대표선수들이 모여 다른 교회 친구들과 경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올림픽 대회와 같아서 기를 게양하고, 선서식을 마친 후에, 각 게임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된다. 일 년에 한 번 각 지부에서 10여개의 교회 아이들 600여명이 모여 이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어와나 클럽원으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더욱 키우게 되며 건전한 스포츠맨십과 활발한 신체 운동을 돕는 시간이 될 것이다. Awana Games는 각 교회 어와나 클럽에서 남녀 각 6~7명이 대표로 선출되며 종목은 한국 어와나 클럽 본부에서 정하는 10가지 기본 종목이다.

★Awana Camp (어와나 캠프)

한국 어와나 클럽에서는 매년 여름에 장학캠프를 진행한다. 장학캠프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본부에서 요구하는 일정의 출석률과 핸드북

완성을 해야 한다.

또한 교회에서는 어와나에 열심인 아이들을 후원할 수 있다. 장학캠프에서는 성경암송(이사야 53장, 엡 2:1~12절, 고전 13장, 엡 6:10~19절, 시편 1편, 시편 34편 등)과 성경공부를 더욱 심도있게 가르치며 저녁 집회를 통하여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 가운데로 도전한다. 이 기간에는 또한 어와나 연중 이벤트인 성경퀴즈대회, 자동차 경주대회, AwanaGames 등을 함께 개최하기도 한다. 지난 2004년 여름 캠프는 영어 캠프로 진행되어 미국에서 MIT에 다니는 학생들(어와나 클럽출신)이 와서 진행한 바 있다.

★Bible Quiz (성경퀴즈 대회)

한국 어와나 클럽 본부에서는 1년에 한번 성경퀴즈대회를 갖는다. 이는 스피드 퀴즈, 객관식 퀴즈, 주관식(반아쓰기) 퀴즈의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교회의 클럽원들은 다른 교회 어와나 친구들과 각 핸드북의 내용을 가지고 퀴즈로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클럽원들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겁게 접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가지게 될 것이다. 각 성경퀴즈 코너에서 일정한 점수를 얻

으면 트로피, 메달, 성경퀴즈 핀 등을 받게 된다. 성경퀴즈대회는 개 교회에서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암송하며 즐거하게 될 것이다.

★Grand prix (자동차 경주 대회)

자동차 경주대회는 한국 어와나 클럽 본부에서 년 1회 개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부에서 제공하는 직육면체의 나무토막을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 혹은 삼촌들과 자신만의 멋지고 예쁜 자동차로 디자인하여 대회에 참석하게 된다.

대회는 스피드 경기와 디자인 경기로 나누어지고 각각 1~3등까지 트로피를 받게 된다.

어와나 클럽의 리더들은 클럽 오픈을 앞두고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학부모 설명회를 통해 어와나 클럽에 대한 더욱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관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11월 14일(주일) 오후 1시 중강당 학부모 설명회

11월 27일(토) 오후 3시 밀알실 전야제
12월 4일(토) 오후 3시 밀알실 Awana Club Open!

지난주일오후, 2,3부 찬양대 연합체육대회

경기는 흥팀 승리, 마음으론 모두 승리



10월 24일 3부 예배 후 시온, 살롬찬양대의 친목체육대회가 있었다.

싱그런 가을 오후 빨강색과 흰색의 복장을 한 찬양대원들이 발걸음도 가볍게 하나 둘씩 운동장으로 모여들었다.

두 찬양대 구분 없이 전체를 합하여 흥팀과 백팀으로 나누어 열린 이번 대회는 두 찬양대의 친목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시온찬양대 이종석집사님의 힘찬 구령에 맞춘 체조로 시작하여 먼저 추억의 기

를 만들어 반환점을 돌아와야 하는 경기인데 마음이 앞선 흥팀 남자대원들이 줄을 무시하고 달리는 바람에 백팀이 승리하였다.

여자를 위한 피구에서는 평소 조용하시던 여자 대원들의 기량을 맘껏 뽐내는 시간이었다.

10분 동안 공을 피하며 강력한 체력을 앞세운 파워플레이로 흥팀이 승리하였다. 남자대원들의 가장 많은 기대를 모은 축구시합, 젊은 분들도 힘든 경기인데 노익

기하신 집사님들은 정말 대단하셨다.

제주도에 파견근무중인 김모 집사님을 스카우트하여 겨우 만회골을 터뜨린 백팀이 전후반 동안 실력은 우세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세트 플레이가 잘 이루어진 흥팀이 2대 1로 승리하였다.

단체 경기인 줄다리기에서는 모든 찬양대원들이 참여하여 체육대회의 마지막 열기를 모으는 가운데 백팀이 2대 0으로 승리하였으나 오늘의 종합우승은 흥팀으로 돌아갔다.

이번대회의 MVP는 구자은, 임애란집사님이 인기상에는 현경태, 이종석집사님이 수상하였고, 개인전으로 열린 출발동서남북 게임에서는 이화준형제가 1위를 차지하였다.

시상식을 마치고 푸짐한 상품까지 받고 나니 저녁 5시 40분, 교회식당에 준비된 뷔페로 즐겁게 식사를 하였다.

권승환집사는 직접 재배한 오가피를 모두에게 나눠주어 기쁨을 더하였다.

이번 체육대회는 준비위원들의 정성스런 준비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각 찬양대의 총무이신 박석진, 박혁동집사와 임원진들, 이석현집사와 최현배집사가 이번 행사의 기획과 진행을 맡아 수고하였다.



고등부, 올림픽공원서 야외예배 드려

고등부는 지난 주일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미술관에서 야외 예배를 가졌다. 미술관에서는 예배를 위해 미공개된 아름다운 장소에서 제공해 주었다. 그곳에서 고등부는 잠언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며 함께 예배를 드렸고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식사 후 미술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미술관을 관람했고 조각공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어우러져 함께 사진을 찍었다. 학생들이 찍은 사진은 인터넷에 올려져 콘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교회소식

1. 청소년사역을 위한 초청강연

오늘 오후1시, 1층 소예배실에서 강수환 선생(동대문 중 교사, YDCF 대표간사)의 “교사로서, 청소년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이 있습니다.

2. 장년세례식

오는 수요일(11월3일) 수요일성경공부시간에 장년세례식이 있습니다. 문답식은 오늘 오후1시30분 2층수련실에서 있습니다.

3. 유아세례식

12월1일(수) 수요일성경공부시간에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부모교육과 문답은 11월7-28일 매주일 오후1시 30분 3집회실에서 있습니다.

4. 마라톤대회

중앙일보 마라톤대회가 다음주일 잠실종합경기장에서 있습니다.

5. 일본 만도린팀 내한공연

일본 다마 만도린 합주단과 호산나 합주단의 합동공연이 다음주일(11월7일) 4부예배시간에 있습니다.

6. 요람사진촬영

2005년 요람사진촬영이 1층 설만한물가 옆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월14일까지입니다.

7. 최충선할아버지 DVD판 구입

지난주일 설교시간에 상영된 팔복, '가난한자는 복이 있나니' 동영상을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 제작사의 협조를 얻어 다음주일 1층로비에서 DVD판을 판매하려 합니다. 장당 15,000원입니다.

앙코르합창단원 계속모집중

남녀성도들이 60대가 되면서 더욱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체험을 통하여 알게 한다. 앙코르 합창단은 찬양이 좋아 동아리 형태로 자발적인 모임이다.

악보 모르고 음치여도 그저 모여서 어린이들처럼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쁨을 갖는다. 건강을 주시는 날까지 감사하며 찬양드리자고 다짐을 한다. 60대의 성도님들께서 건강을 감사기도 하신다면 찬양도 드릴 수 있다. 단원들은 상호친목 도모도 하며 병문안도 하고 칠순이나 팔순잔치에 축하도 부르기도 하고 천국에 먼저 가시는 분 어떻게 해야되는지 주님께 기도중이라 한다. 연습은 매주일 오전 10:35-11:30까지 5층 찬양연습실에서 있다. (연락:김주봉, 섬김이: 신정웅(011-236-0661))

유아세례 부모교육은 다음주일부터 제3집회실에서

유아세례가 12월 1일(수)에 있다. 유아세례 부모교육(문답포함)은 11월 7일 ~ 11월 28일까지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 1층 제3집회실에서 있다. 부모 가운데 한 분 이상 세례를 받았고, 자녀가 만 2세 이하인 경우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교우는 오늘과 다음주일, 그리고 세례교육 당일 오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세례교육은 부모가 모두 참석해야만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 세례예식팀에서는 부모교육에 부부가 함께 참석해 주시기 당부하며, 자세한 문의는 세례예식팀 혹은 정희성목사(010-9992-8252)에게 하면 된다.

교회요람 사진촬영 3주 남았습니다

1. 모든 교우들은 사진촬영에 협조 바랍니다.

11월14일 주일까지 모든 교우들은 사진촬영에 협조바랍니다. 지난주일까지 1000여분의 성도들이 사진촬영을 마쳤습니다. 사진촬영 개인별 소요시간은 30초 정도입니다. 1층 설만한물가 옆에서 오전8:30부터 오후2:00까지입니다.

2. 개인 교적자료 열람은 다음주일부터 2주간입니다.

교적자료 열람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주일 오전 8:30부터 오후 2:00까지 1층 좌우복도에 2주간 교적 자료를 게시합니다. 사진을 제외한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시고 수정 바랍니다.

3. 교인표기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1년이상 교회출석이 확인되지 않는 교우는, 교회요람이 1년용인 관계로 2005년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교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② 동명이인 교우의 이름뒤의 A,B는 다시 조정합니다.
- ③ 타교회에서 장로임직한 경우, 이명서류를 사무실로 내어주시면 당회승인 후 협동장로로 표기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직분란을 비워둡니다.

주님의교회 2005교회요람위원회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오후1시이후에는 유소년축구클럽 관계로 이동주차하여 주십시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테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10시~오후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일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일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